

호간케야키

이 느티나무의 굵은 뿌리가 거인의 손가락처럼 밑의 큰 바위에 달라붙어 있다. 산 표면을 흐르는 물이 큰 바위 주위의 흠을 서서히 쓸어가서 이 나무는 화산암 위에 불안정하게 서 있다. 느티나무는 튼튼하고 적은 영양분으로도 크게 자랐기 때문에 신비한 기운을 지닌 나무라고 믿어져왔다. 특히 이 느티나무처럼 홀륭한 나무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.